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제 39 - 8 호

2022년 2월 20일

- 오늘 주일공동예배는 각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졸업감사예배로 드립니다.
 - * 유 치 원 졸업 : 김하랑 최민용
 - * 초등학교 졸업 : 정아인 윤치후 김하운 최정원 최시원
 - * 중 학 교 졸업 : 옥정민
 - * 고등학교 졸업 : 최재원 박인하 이연우
 - * 대 학 교 졸업 : 서진오 장성아 한규빈 이재신
 - * 대 학 원 졸업 : 채지환
- 오후에 예정된 공동체학교 연합졸업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연기합니다.
- 2022년 겨울공동체생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강춘자 권사 (환갑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졸업[卒業]이란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기술이나 학문에 대해 통달하여 익숙해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봤을 때,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익숙해져 그 교육을 마치고 다른 교육과정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배움의 장소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졸업은 실질적으로는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등학교의 졸업과 대학의 졸업이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각 교육기관의 졸업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와 집이라는 익숙한 곳에서 더욱 확장된 경험을 하는 유치과정, 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서는 연습을 하는 초등과정,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교육과 생활을 배워나가는 고등과정,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쌓아 사회의 일원이 되는 전문교육과정들을 잘 마쳤다는 것을 인정받는 시간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졸업하는 본인과 가족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졸업은 언제나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설레임의 감정을 가져다줍니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을 잘 마쳤다는 기쁨과 더 큰 무대로 나가는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기대로 인한 명확하지 않지만 흥분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꽃다발과 축하해주는 사람들, 함께 사진을 찍고 서로에 대해 축하해 주는 시간이 더욱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익숙한 장소와 사람들, 나를 편안하게 해 주었던 모든 눈빛과 말소리들이 이제는 이전과 같이 내 주변을 가득 메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당황하고 긴장된 순간들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대감과 불안함이라는 떨림은 복잡하게 섞여 우리를 흔들여 놓아 복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 상황이 무엇 이든지 그 안에서 잘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어디서든 도드라져 보입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잘 살아가는 모습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유익한 자산입니다. 마치 요셉이 하인으로 사는 모습과 감옥에서 사는 모습, 그리고 총리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 것과 같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빠르게 이해하고 또한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 잘 판단 내릴 수 있으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예수님을 증거 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나의 처음 시작이 옆 사람보다 뒤쳐져 보이거나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발걸음은 보이지 않는 허무한 허우적거림 같아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에 갑자기 몰려오는 허무함과 후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며 또 그간 살아왔던 자연스레 나오는 삶을 통해 모든 눈앞의 일들을 잘 해 나갈 것입니다.

졸업은 이전 교육과정의 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이나 그 학교와의 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계속 이어져 있는 끈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과 공간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들과 새로운 도전들을 잘 이겨내고 앞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각 학교의 졸업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열고 한걸음 성큼 내딛는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복잡함과 눈에 띄지 않는 노력들은 모두 의미가 있으며 새로운 삶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은 나의 삶에 있어서의 강한 원동력이 되어 어디서든 멋지게 살아가며 아름다운 향기를 뿜내게 될 것입니다.

한주간의 말씀

“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잠언 25장 1~15절

제목 : 지도자를 위한 잠언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335 382 460 449

1. 내용관찰(What)

- 1~7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며 악인을 제거하고 높은체 하지 말라.
- 8~12 급하게 소송을 걸지 말고 상대의 감정과 마음을 지켜주며 성장할 수 있게 격려하자.
- 13~15 적극적으로 일하고 믿음을 주며 분내지 말자.

2. 내용의 의미(Why)

- 1) 왕은 지혜롭고 정의로우며 겸손한 자이어야 한다.
- 2) 상황과 사람을 잘 이해하고 경우에 맞는 말과 책망을 하자.
- 3) 거짓으로가 아닌 상대에 맞게 행하며 말하자.

3. 의미의 적용(How)

- 1) 우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지혜와 정의 겸손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 2)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자.
- 3)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저 천군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피로 물들고 고통만 가득한 이 땅은 천국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피조물에게 그 큰 영광이 주어졌지만, 이 땅에는 늘 어두운 골짜기, 비좁은 길, 고통과 비명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좁은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굳이 힘들여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빛나는 더 하늘로 인도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깊은 나락 속에 빠져 있는 이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움 너머에는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랑을 이룬 무리가 여전히 방황하고 서로 미워하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과 온전히 하나가 된 이들의 찬미를 듣는 순간, 우리도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찬미는 이 세상을 순례하는 우리의 음성 속에도 파고듭니다. 이 찬미는 반목하던 영혼에 안식을 주고, 운명만을 바라보고 있던 답답한 처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똑같이 따라 한다면, 그것은 부끄럽지만 하늘의 군대가 부르는 찬미에 처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찬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당신의 뜻에 맡길 수 있나이다.”

헬무트 틸리게. [세계를 부등켜 안은 기도] 중에서.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돌고래반 꾸러기들은 노래와 춤과 절을 연습해요. 코끼리반 꾸러기들은 언니, 오빠를 찾다 이내 동생들끼리 재미있게 놀니다.

금요일 점심을 먹고 몇몇꾸러기들이 유토를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도 생기고 장난감 가게도 생겼습니다. 돌고래반 꾸러기는 마을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누구든지 오세요라고 쓰인 초대장을 만들고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초대장을 받은 꾸러기들은 잔치에 가져가 나눠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유토로 빵, 쿠키, 과일, 사탕을 만들고 담을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을 잔치를 하자고 했던 꾸러기에게 잔치를 시작하는 인사말을 하라고 하니 꾸러기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던 돌고래반 친구가, 꾸러기 생활 중 가장 즐거웠던 잔치 놀이가 생각나 동생들과 다같이 잔치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놀던 꾸러기까지 모두 모여 함께 잔치를 하기로 합니다. 인사말이 끝나니 꾸러기들이 기도를 하고 먹어야 한다고 하여 잠깐 놀러 온 선배 꾸러기가 대표로 기도를 하고 다같이 잔치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졸업하는 돌고래반 꾸러기들이 꾸러기의 생활을 행복한 기억으로 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이번주 어린이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싶었던, 궁금했던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개학을 했습니다. 이틀간의 등교이긴 했지만 학교에서 먹는 닭볶음과 떡볶이는 친구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방학과제상도 12명이나 받았고, 6학년들의 졸업여행 보고도 듣고, 제주에서 사온 선물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학년들이 졸업을 앞

두고 사은회를 마련해 주어서 선생님들을 올렸습니다. 6년간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풀어 놓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마음이 진하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22년을 시작하는 오프닝, 오리엔테이션을 부모님들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반갑고 안부를 묻고 일년의 학사력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출발이 좋은게 웬지 일년이 순조로울거 같은 멋진 예감이 든다는 말로 어린이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이번 주 멋쟁이는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요일에는 2, 4학년이 4월에 보는 중학 졸업, 고등 졸업 검정고시를 신청하러 갔었습니다. 덕분에 시험이 어렵다 쉽다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봄학기를 마무리지으면서 새롭게 시도했던 수업도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울리안과 엘라를 포함한 선생님들이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수업을 개설했던 특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멋쟁이들이 직접 선택해서 들어갔던 특강은 이번 봄학기만의 매력이었습니다.

멋쟁이들에게는 2021학년도 학년의 마지막 정리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즐거웠던 일들로 이야기 꽃을 피웠고, 새로운 학년을 위한 다짐들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야기는 역시 다다음 주에 볼 새내기였습니다. 1학년으로 어떤 친구들이 들어올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이야기를 하면서 2022년을 가능해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감기기운이 있는 멋쟁이가 있어서 자가진단 키트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양성반응이 나와 모든 멋쟁이가 검사를 실시했고, 다행이 다른 이들은 모두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즉시 격리조치를 했고 PCR 검사 이후에 귀가를 했습니다. 해당 멋쟁이의 쾌유와 모든 멋쟁이의 안전한 생활을 기도합니다.

즐거움 만큼이나 어려움이 많았지만 2021학년도를 봄학기까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새 학년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기대하고 마음먹고 준비했던 것들을 다시 잘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멋쟁이들의 꿈으로 2022년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돈희 >

믿음직한 심부름꾼

방학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개학이 다가옵니다. 방학동안 책장 정리도 하고, 재봉틀을 이용해 바지 수선도 하고, 간단한 소품도 만들어 보고, 커튼도 만들어서 집을 정리하고자 했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뭘 했는지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멀티가 된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젠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함을 보고 힘들어 합니다. 매일 이렇게 힘들기 전에 조금씩 해 둘걸... 그리고 젊었을 때 배워 둘 걸..... 뭘 해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도 이뻐 하실까' 라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지인이 보내준 말씀을 보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나의 행동에 많은 불평을 쏟아 놓고, 많은 일들에 짜증을 부리고 힘들어 했던 일들을 되새기며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며칠 전 어린이학교 신입생 면담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예쁘고 정성스럽게 차려 입고,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여러 선생님들의 질문에 막힘 없이 얘기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의 면담 질문에 할머니가 된 듯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물어 봅니다. 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고~ 아이들은 자신감 있고 씩씩하게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부모님이랑 여행 갈 때, 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랑 회를 좋아한다고~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쁜지... 그 어느 때 보다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예쁜 사랑에 울 한 해도 푹 빠져 지내려 합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처럼 올 한 해 믿음직한 심부름꾼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엔 공동체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 주셨던 것처럼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현숙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학개서 1장

인도 : 이어진 전도사

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의료인들을 위해]

오늘 기준 확진자 9만명대 진입. 오미크론 우세종. 설 이후 계속 증가중. 폭발적인 증가세가 줄어들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관련업에 종사중인 의료인들을 위해 기억해 주시길.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은샘 공동체]

- 장애인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 자립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세워진 은샘치아바타 빵집이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이웃을 섬기며 선교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 장애인 작업장이 세워져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일 할수 있는 일터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 매우 추운 한파. 식구들의 건강
- 학교들이 곧 졸업식, 새학기 시작을 한다. 잘 살피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린 한 주간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햇볕은 봄의 기운이 가득한 것을 보니 정말 겨울의 끝자락인가 봅니다. 공동체 식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 봄 맛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학교는 방학을 마무리하면서 졸업과 입학, 새로운 학기 준비로 바쁘게 움직였고, 주방도 새 집기를 마련했습니다. 공동체 정원도 새롭게 묵은 풀들을 걷어내고 가지치기를 고민하며 손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공동체에 새 봄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산수유꽃이 피고 주렁나무의 잎이 솟아날 것입니다. 새 봄이 오듯 공동체 모든 식구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